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지놈앤컴퍼니 (314130)

신규타겟 ADC로 체질 전환, 다음은 후속 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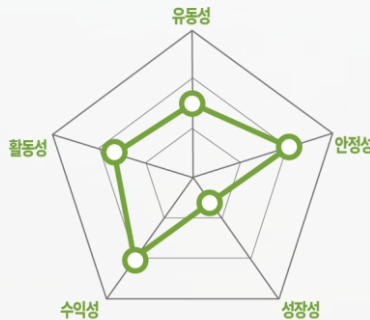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동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GNOCLE™ 플랫폼 기반 신규타겟 항체 및 ADC 개발사로 R&D 전략을 재편하고 있으며, Debio 0633과 EP0089 기술이전을 통해 플랫폼의 사업화 가능성을 일부 입증
- GENA-104 ADC와 GENA-120은 각각 CNTN4와 ITGB4를 타겟하는 후속 신규타겟 ADC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ADC 시장의 관심이 Novel target ADC로 이동하는 환경에서 추가 L/O 가능성 보유
- UIQ 중심의 컨슈머 사업은 제품 판매 기반의 가시적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부 BEP 달성 및 해외 채널 확대가 확인될 경우 신약개발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하는 상업화 축으로 재평가 가능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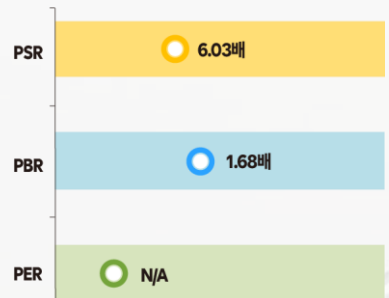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지놈앤컴퍼니 (31413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이금민 km.lee@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신규타겟 ADC로 전환 중인 플랫폼 바이오텍

동사는 GNOCLE™ 플랫폼 기반 신규타겟 발굴 역량을 바탕으로 항체, ADC,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바이오텍.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신규타겟 항체 및 ADC 중심의 R&D 기업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으며, 동시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브랜드 UIQ를 중심으로 한 컨슈머 사업과 CDMO 사업을 통해 상업화 매출 기반도 확보.

GENA-104&120 후속 L/O 가능성과 컨슈머 사업 BEP 달성 가능성 주목

동사는 신규타겟 ADC 플랫폼의 사업화 가능성과 컨슈머 사업의 실적 기여 확대되고 있는 중. Debio 0633과 EP0089를 통해 Debiopharm 및 Ellipses Pharma와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GNOCLE™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를 일부 입증. 향후 GENA-104 ADC와 GENA-120 등 후속 신규타겟 ADC 파이프라인의 추가 L/O 가능성, 기존 L/O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 그리고 UIQ 중심 컨슈머 사업의 BEP 달성 여부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주요 변수.

2026년 실적 개선과 후속 L/O가 리레이팅 변수

2026년 연결 매출액은 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직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컨슈머 사업의 외형 성장과 BEP 달성 가능성은 손익 개선의 긍정 요인.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2026년 컨슈머 사업 성장, 기존 기술이전 파이프라인의 개발 진전, 후속 ADC 파이프라인의 신규 L/O가 확인될 경우 추가 리레이팅 여지 존재.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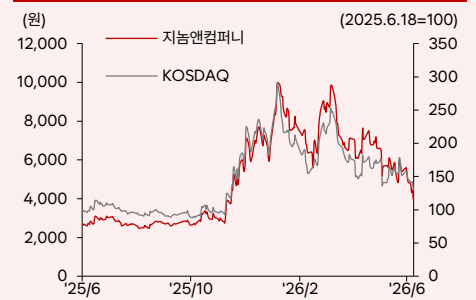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1	143	277	246	294
YoY(%)	3,021.3	1.5	94.1	-11.4	19.6
영업이익(억원)	-575	-551	-242	-292	-265
OP 마진(%)	-408.3	-385.4	-87.2	-118.9	-90.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18	-475	-201	-64	-233
EPS(원)	-1,769	-1,485	-616	-172	-452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181	14.0	3.2	10.5	6.3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2.9	3.2	1.9	2.9	2.1
ROE(%)	-54.6	-59.4	-36.3	-8.3	-23.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6/26)	3,575원
52주 최고가	9,970원
52주 최저가	2,465원
KOSDAQ (6/26)	851.37p
자본금	220억원
시가총액	1,613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4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6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3억원
외국인지분율	4.50%
주요주주	박한수 외 4인 740%
	배지수 외 7인 6.8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7.3	-42.6	33.6
상대주가	-13.6	-38.0	23.7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 기업 개요 및 연혁

**GNOCLE 플랫폼 기반 신약
연구개발사업, UIQ 브랜드
컨슈머 사업, CDMO 사업을
병행하는 바이오텍**

지놈앤컴퍼니는 2015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바이오텍으로, 2020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했다. 당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신약개발, 컨슈머, CDMO 3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신약개발 사업의 핵심은 자체 플랫폼 GNOCLE™을 통한 First-in-class 신규타겟 발굴에 있다. GNOCLE™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기반의 신규 약물표적 발굴 플랫폼으로, 항체-약물 접합체 ADC 및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도출에 활용된다. 당사는 2024년 5월 Debiopharm(스위스)와 신규타겟 ADC용 항체에 대해 총 4.26억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2월에는 면역항암제 EP0089(GENA-104)를 Ellipses Pharma(영국)에 기술이전하며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컨슈머 사업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화장품 브랜드 'UIQ'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UIQ는 2021년 브랜드 런칭 이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제품력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올리브영, 무신사 등 국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Amazon, 일본 Qoo10, Rakuten 등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확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의 경우 2021년 인수한 List Biological Laboratories(미국)를 통해 세균성 독소 및 재조합 단백질 등 생물학적 제제 원료의 위탁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약 120억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업부는 동사가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 창출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혁

2015~2019	2020~2021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09 법인 설립 2017.07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락토메이슨, 유산균 공급) 2017.09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메디오젠, 유산균 공급) 2018.01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CKD Bio, 유산균 공급) 2018.12 코넥스 상장 2019.01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ABL바이오, 신규면역관문억제제 항체 개발) 2019.03 Clinical Trial Advisory Agreement 체결 (글로벌 화장품 그룹) 2019.06 호주 자회사 GENOME AND COMPANY AUSTRALIA PTY.LTD. 출자 2019.08 동아제약과 헬스·뷰티 제품 공동개발 MOU 2019.12 GEN-001 임상 1/1b상 협력 및 공급계약 체결 (Merck KGaA/Pfizer) 2019.12 GEN-001 동아시아 지역 L/O (LG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02 GENS-501 원료 공급 계약 체결 (휴젤) 2020.04 GEN-001 미국 1/1b상 IND 승인 2020.05 GEN-001 한국 연구자주도 임상 1상 IND 승인 2020.08 미국 바이오텍 Scioto Biosciences, Inc. 인수 2020.11 GEN-001 한국 임상 1/1b상 IND 승인 2020.12 코스닥 상장 2021.01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유이크(UIQ)' 런칭 2021.02 공동 연구개발 계약 체결 (Debiopharm, 항체-약물 접합체) 2021.03 GEN-001 임상시험 2상 협력 및 공급계약 체결 (Merck KGaA) 2021.05 Scioto Biosciences, SB-121 미국 임상 1상 IND 승인 2021.10 GEN-001 국내 임상 2상 IND 승인 (적응증: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증) 2021.10 미국 자회사 List Biotherapeutics, Inc. 설립 2021.12 미국 List Biological Laboratories, Inc.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03 GEN-001 임상 2상 협력 및 공급계약 체결 (MSD) 2022.03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 '리큐젠 리큐지바이옴' 런칭 2022.11 GEN-001 국내 임상 2상 IND 승인 (적응증: 담도암) 2024.01 GENA-104 국내 임상 1상 IND 승인 (적응증: 고형암) 2024.06 신규타겟 ADC용 항체 L/O (Debiopharm, USD 426,000,000) 2025.02 GENA-104 L/O (Ellipses Pharma) 2025.03 UIQ, 일본 유통사 K와 총판 계약 체결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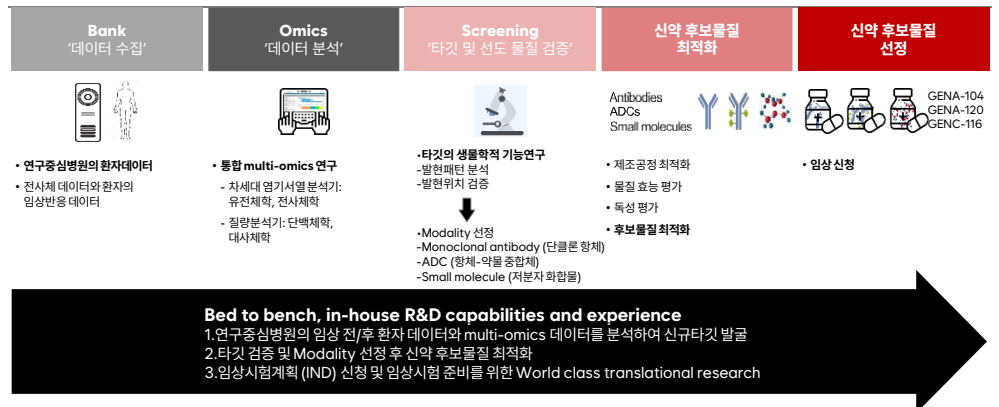
1. 신약개발 사업

신약개발 사업은 GNOCLE™ 기반 신규타깃 발굴 역량을 바탕으로 항체, ADC,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이전하는 플랫폼형 R&D 사업

신약개발 사업은 동사의 핵심 R&D 사업부문으로 동사는 유전체 분석 기반 신규타깃 발굴 플랫폼인 GNOCLE™을 활용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새로운 약물표적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체, ADC(Antibody-Drug Conjugate), 면역항암제 등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모델은 자체 발굴한 신규타깃과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또는 바이오테크에 기술이전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GNOCLE™은 임상데이터 기반의 bed-to-bench 접근법을 활용한 신규타깃 발굴 플랫폼인데, 동 플랫폼은 암 조직과 정상 조직 간 타깃 발현 차이, 질환 관련성, 약물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동사는 이를 통해 기존에 상업화된 표적이 아닌 신규 약물표적을 발굴하고, 해당 표적을 활용한 First-in-class 후보물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타깃 발굴부터 후보물질 선정, 전임상 검증, 임상 진입까지의 R&D 과정을 내부 플랫폼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동사 신약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다.

GNOCLE™플랫폼 소개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러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동사는 이미 두 건의 License-out 성과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2024년에는 Debiopharm(스위스)에 신규타깃 ADC용 항체 Debio 0633을 기술이전했다. Debio 0633은 암세포에 발현하는 특정 단백질질을 인식해 세포 내부로 진입한 뒤 세포독성 약물이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DC용 항체 후보물질이다.** Debiopharm은 자체 ADC 플랫폼인 Multilink™와 해당 항체를 결합해 ADC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 중이다. 해당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약 **5,864억원**으로 공시됐으며, **2024년 신약개발 사업 매출로 기술이전 수익 71억원**이 인식됐다. 이후 임상 진전에 따라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있다.

2025년에는 **Ellipses Pharma(영국)에 CNTN4 타깃 면역항암제 GENA-104, 파이프라인명 EP0089의 전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이전했다.** GENA-104는 동사가 자체 발굴한 신규타깃 CNTN4를 억제하는 항체신약 후보물질로 전임상 연구에서 T세포 활성화를 통한 항암 효능이 확인됐으며, 2024년 1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기술이전 이후에는 Ellipses Pharma가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됐으며, 본계약은 임상 진전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은 없고, Ellipses Pharma가 임상 비용과 진행을 담당하다가 이후 Sublicensing을

하게 되면 profit share을 하는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다.

현재 동사의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은 신규타깃 기반 ADC와 면역항암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CNTN4 타깃 기반 GENA-104 ADC, ITGB4 타깃 기반 GENA-120 ADC, ITGB4와 TROP2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GENB-120, NUAK1 타깃 기반 신규 화합물 GENC-116 등이 있다. 동사는 신규타깃 항체를 ADC용 항체 또는 면역관문억제제 형태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일 타깃을 다양한 치료 모달리티로 확장하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CNTN4 타깃은 동사의 R&D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인데, GENA-104는 **CNTN4 억제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로 개발되어 Ellipses Pharma에 기술이전하기도 했지만, 동사는 **동일 타깃을 ADC 파이프라인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GENA-104 ADC는 CNTN4가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에서 과발현되고, 항체 결합 후 세포 내로 내재화되는 특성을 활용한 ADC 후보물질로 동사는 CNTN4 타깃 항체에 Topoisomerase I inhibitor 계열 페이로드를 결합하는 전략으로 개발 중이며, 전임상 단계에서 항암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GENA-120은 **ITGB4를 타깃으로 하는 ADC 후보물질**로 ITGB4는 일부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세포표면 단백질로, 동사는 이를 신규타깃 기반 ADC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GENA-120은 Topoisomerase I inhibitor 기반 ADC로 개발되고 있으며, 자체 설계한 친수성 링커와 검증된 페이로드 조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임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동사의 신약개발 사업은 GNOC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타깃을 발굴하고, 이를 항체, ADC,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한 뒤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하는 구조다. 공개된 파이프라인과 최근 기술이전 이력을 감안하면, 동사의 R&D 전략은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중심에서 신규타깃 항체 및 ADC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놈앤컴퍼니 R&D 파이프라인

As of June 2026

Modality	Pipeline	Target	Indication	Developmental Status						Partner
				Target	Hit	Lead	Nonclinical candidate	IND enabling	Phase I	
ADC	Debio 0633	Hide	Solid tumors						Debiopharm	
mAb	EP0089	CNTN4	Solid tumors						ELL:PSES	
ADC	GENA-104	CNTN4	Solid tumors							
ADC	GENA-120	ITGB4	Solid tumors							
ADC	GENB-120	ITGB4 & TROP2	Solid tumors							
ADC	ADC Programs	N/D	N/D							
NCE	GENC-116	NUAK1	Fibrosis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컨슈머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UIQ)를 중심으로 제품군과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확대하며 동사의 주요 상업화 매출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

2. 컨슈머 사업 (2025년 연결 매출 비중: 49%)

컨슈머 사업은 동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역량을 일반 소비자 영역으로 확장한 사업부문인데, 동사는 2021년 1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UIQ)를 론칭했고, 현재 컨슈머 사업의 대부분은 유이크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이크는 피부 건강에 유익한 스킨 유래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표방하며, 동사가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효능 원료를 핵심 성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이크 제품에는 큐티바이옴™, 릴리프바이옴™, 리쥬바이옴™ 등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특허성분이 적용된다. 브랜드 초기에는 바이옴 베리어 에센스 인 파우더, 리바이브 바이옴 세럼, 듀이 바이옴 세럼 등을 출시했고, 이후 클렌징폼, 시트마스크, 토너, 크림, 크림 미스트 등 스킨케어 전 과정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2026년 1월에는 신규 안티에이징 라인인 리쥬바이옴 EX를 출시하며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유이크는 총 4개 라인, 61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유이크 제품의 마이크로바이옴 효능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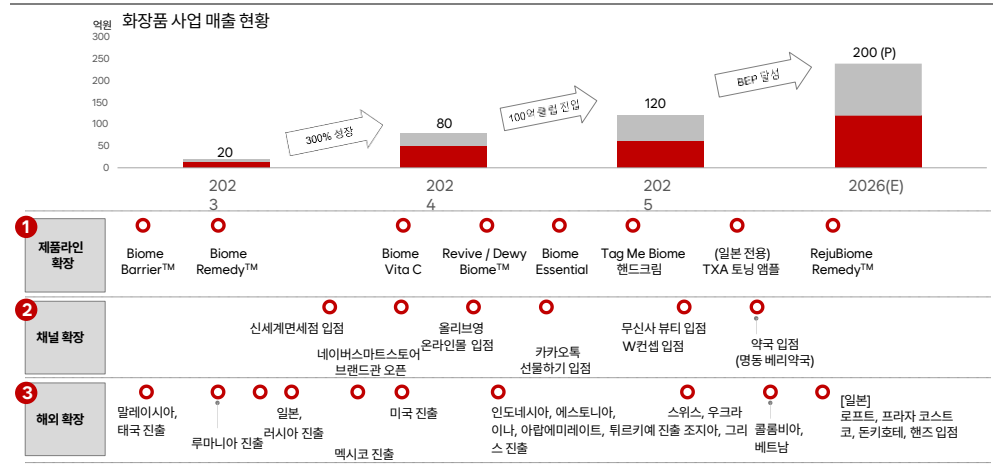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 측면에서 컨슈머 사업은 최근 동사의 주요 상업화 매출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컨슈머 사업 매출액은 2024년 80억원, 2025년 120억원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기준 연결 매출(약 36억원) 내 비중은 62.7%로, 단일 사업부문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점차 매출원의 가시성을 높여가고 있다.

유통 채널은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무신사 등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해 있으며, 2024년에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입점 및 신세계백화점 본점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 2025년에는 성수 단독 팝업스토어를 운영했고, 일본에서는 신주쿠백화점 및 도쿄 다이칸야마 서점 팝업을 진행했다. 또한 일본 총판계약을 통해 일본 전역 1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버라이어티숍에 입점했으며, 일본 아마존 단독 브랜드관도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UIQ 상업화 현황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채널 확장도 진행 중인데, 유이크는 일본 로프트, 아토코스메, 프라자, 돈키호테 등 일본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해 있으며, 현재 해외 28개국에 진출해 있다. 당사는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유럽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미국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등 주요 지역별 화장품 관련 인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분리 동정한 균주 GEN-001을 주성분으로 한 메디컬 그레йд 프로바이오틱스 이뮤노바 GEN001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군은 컨슈머 사업 내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으로 분류되는데, 현재까지 외형 측면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기능식품은 마이크로바이옴 상업화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

3. CDMO 사업 (2025년 연결 매출 비중: 50.4%)

CDMO 사업은 미국 List Labs 인수를 통해 편입된 마이크로바이옴, 박테리아 유래 제품 및 단백질 기반 위탁생산 사업으로, cGMP 수준의 생산&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컨슈머 사업과 함께 동사의 연결 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상업화 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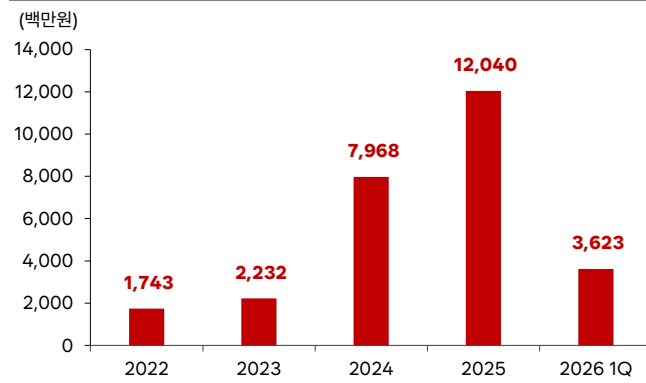
CDMO 사업은 동사가 2021년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 List Biological Laboratories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편입한 사업부문이다. List Biological Laboratories는 1978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소재 기업으로, 지놈앤컴퍼니는 2021년 약 2,700만달러, 원화 기준 약 324억원에 지분 60%를 인수했고, 인수 목적은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진출 및 확대였다.

List Labs는 Bacterial products, Protein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분기보고서상 CDMO 사업 매출은 제품 및 용역 매출로 인식되며, 2024년 127억원, 2025년 124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연결 매출 내 CDMO 사업 비중은 50.4%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36.7%를 차지하며, 동사의 CDMO 사업은 컨슈머 사업과 함께 현재 연결 실적을 구성하는 주요 매출 사업부문이다.

역량 측면에서 List Labs는 cGMP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및 박테리아 유래 제품은 생산 공정, 균주 관리, 품질관리 측면에서 일반 화학합성 의약품과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 List Labs는 박테리아 관련 제품과 단백질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제조 역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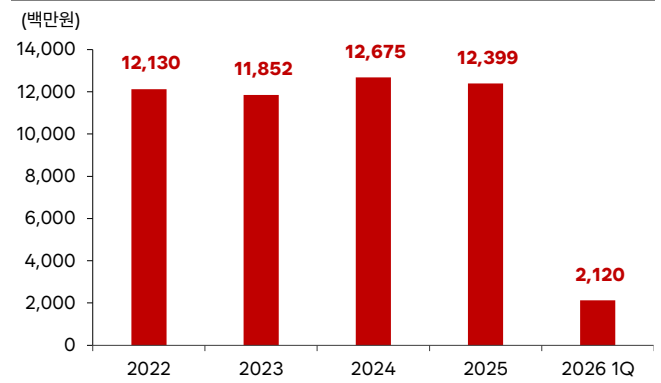
외부 고객 대상 위탁생산 매출을 연결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컨슈머 사업 매출 추이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DMO 사업 매출 추이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 회사

2026년 3월 말 기준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4개이며 각각 CDMO 사업과 신약 연구개발 및 글로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List Biological Laboratories, Inc.는 미국 소재의 CDMO 기업으로, 동사가 2021년 지분을 인수하며 연결회사로 편입되어 현재 6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약 261억원이다.

List Biotherapeutics, Inc.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미국 임상 진행 및 사업화를 위해 2021년 설립한 미국 자회사이다. 동사가 71.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45억원이다.

Genome and Company Australia Pty Ltd는 2019년 설립한 호주 자회사로,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진행을 위한 현지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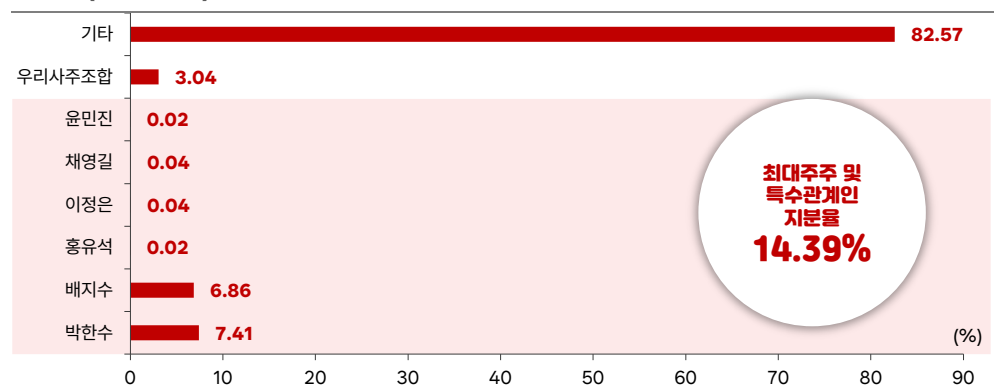
Scioto Biosciences, Inc.는 뇌질환 치료제 SB-121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으로, 2020년 동사가 인수하며 연결회사로 편입되었다. 현재 63.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2억원이다.

주주 구성

2026년 3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박한수 대표이사로, 총 3,306,760주를 보유해 7.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 배지수 공동대표가 3,060,640주를 보유해 6.86%의 지분을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외에도 홍유석 총괄대표(지분율 0.02%)와 최대주주의 친인척 3인(지분율 0.1%) 지분을 모두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전체 주식수의 14.39%에 해당한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총 1,355,575주이며, 이는 전체 주식수의 3.0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주구성 (2026.03.31)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DC 시장 산업, 검증 타겟 경쟁에서 신규타겟 확보 경쟁으로도 관심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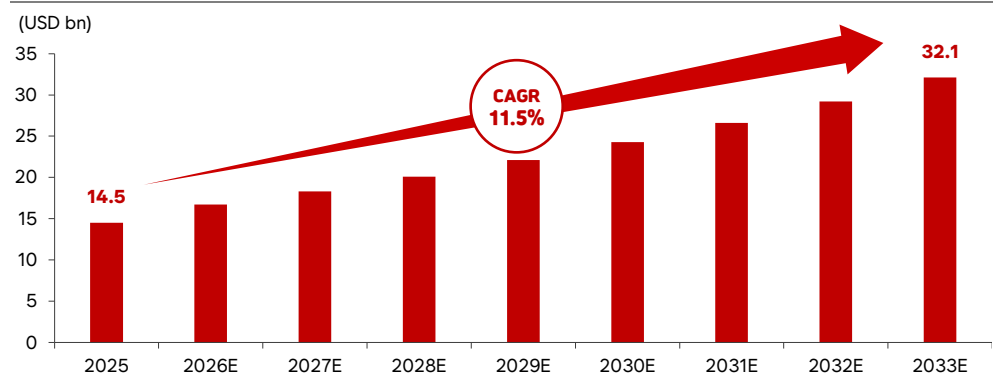
ADC 산업은 고형암 적응증 확대와 빅파마의 대규모 투자로 이미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향후 차별화의 핵심은 기존 검증 타겟을 넘어 신규타겟 발굴, linker-payload 최적화, 안전역 확보 및 임상적 재현성 입증

항체-약물접합체 ADC(Antibody-Drug Conjugate)는 암세포 표면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에 세포독성 약물(payload)을 링커(linker)로 결합한 표적항암 치료제다. 기존 세포독성항암제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고 작용해 전신 독성을 유발하는 반면, ADC는 항체의 표적 선택성을 활용해 payload를 암세포에 상대적으로 선택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기전적 특성으로 인해 ADC는 항암화학요법의 강한 세포독성 효과와 항체치료제의 표적성을 결합한 모달리티로 평가받고 있다.

ADC 시장은 초기 혈액암 중심에서 고형암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1세대 ADC는 CD33, CD30 등 혈액암 타겟을 중심으로 개발됐으나, 최근 시장 성장은 HER2, TROP2, Nectin-4, FRα 등 고형암 타겟 ADC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Enhertu’, ‘Trodelvy’, ‘Padcev’, ‘Elahere’ 등 주요 제품이 유방암, 위암, 폐암, 방광암,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ADC는 후기 치료라인의 보완적 치료 옵션을 넘어, 주요 암종의 표준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항암 모달리티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ADC 시장은 2025년 145억달러에서 2026년 167억 달러, 2033년 321억달러로 성장하면서 2026~2033년 연평균 성장률 1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확대의 핵심 요인은 승인 ADC의 적응증 확대, 고형암 침투율 증가, 초기 치료라인 진입, 병용요법 개발, 그리고 신규 항원 및 차세대 linker-payload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Global ADC Market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VR,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DC 시장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승인 제품의 적응증 확대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HER2 ADC는 기존 HER2-positive 유방암 중심에서 HER2-low, HER2-ultralow, 위암, 폐암, 대장암 및 기타 고형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TROP2 ADC 역시 삼중음성유방암, HR+/HER2-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으로 개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Nectin-4 ADC는 방광암에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을 통해 1차 치료까지 진입했으며, FRα ADC는 백금저항성 난소암에서 상업적 가치를 입증했다. 따라서 ADC의 성장성은 단일 제품 출시보다 기존 제품의 라벨 확장 치료라인 전진에서 더 크

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성장 동력은 고행암 내 미충족 수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고행암은 혈액암 대비 중앙미세환경, 항원 이질성, 약물 침투성, 정상조직 발현에 따른 독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ADC 개발 난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ADC 기술은 높은 payload potency, bystander effect, cleavable linker, 개선된 DAR(Drug-to-Antibody Ratio) 설계 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linker와 payload가 ADC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 초기 ADC에서는 MMAE(Monomethyl Auristatin E, 해양 생물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를 변형해 만든 합성 항암제로, 전 세계 ADC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페이로드 중 하나), MMAF(Monomethyl Auristatin F, MMAE와 같은 아우리스티틴 계열에서 파생된 미세소관 억제제), DM1&4(Derivative of Maytansine 1&4, 관목 식물 등 천연물에서 유래한 마이크로타닌을 변형해 만든 합성 항암제로, 고성능 ADC에 널리 쓰이는 페이로드 중 하나)와 같은 미세소관 저해제 payload가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Topoisomerase I inhibitor 계열(세포 분열 시 DNA 구조를 조절하는 핵심 효소인 토포이소머라제 I을 표적하는 항암제 계열) payload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Enhertu’와 ‘Trodelvy’의 성공 이후 DXd, SN-38, exatecan 계열 payload는 고행암 ADC 개발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았다. Topoisomerase I inhibitor payload는 고행암에서 강한 항종양 효과와 bystander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payload 방출 조절 실패 시 혈액학적 독성, 위장관 독성, ILD(간질성 폐질환) 등 안전성 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DC 개발의 핵심은 단순히 강한 payload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 선택성, 세포 내재화, linker 안정성, DAR, bystander effect, off-target toxicity를 균형 있게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cleavable linker는 종양세포 내 특정 환경에서 payload 방출을 유도하고 주변 암세포까지 사멸시키는 bystander effect를 기대할 수 있어 고행암 ADC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linker가 혈중에서 불안정할 경우 전신 독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 안정성과 종양 내 방출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ADC 플랫폼 구성요소별 차별화 포인트

	기존 한계	차세대 ADC의 개발 방향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
Antibody	정상조직 발현, 낮은 internalization, 중앙 이질성	암 특이적 epitope, bispecific antibody, 높은 internalization 타깃 개발	타깃 선택력과 중앙 선택성이 파이프라인 가치의 출발점
Linker	혈중 조기 방출 또는 암세포 내 방출 부족	혈중 안정성 강화, 암세포 내 효소, pH 선택적 절단	독성 감소와 투여 가능 용량 확대의 핵심
Payload	강한 독성, 내성, 제한된 therapeutic window	Topo-I, MMAE/MMAF, PBD prodrug, dua payload, immune-stimulating payload	동일 타깃 내 차별화와 내성 이후 시장 공략 가능
Conjugation	불균질 DAR, 제조 일관성 저하	Site-specific conjugation, homogeneous DAR	CMC, 안전성, PK 개선에 중요
Combination	단독요법 중심	IO 병용, chemotherapy 병용, dual ADC 전략	치료 차수 전진과 시장 확대의 핵심 전략

IO: Immuno Oncology, CMC: Chemistry/Manufacturing/Controls, PK: Pharmacokinetics,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마지막 성장 동력은 빅파마의 ADC 확보 경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Pfizer(미국)는 Seagen(미국)을 약 430억달러에 인수하며 ‘Adcetris’, ‘Padcev’, ‘Tivdak’ 등 상업화 ADC와 ADC 개발 플랫폼을 확보했고, MSD(미국)는 Daiichi Sankyo(일본)와 최대 220억달러 규모의 DXd 기반 ADC 3개 자산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J&J(미국)는 Ambrx(미국)를 약 20억달러에 인수하며 site-specific conjugation 기반의 차세대 ADC 플랫폼을 확보했고, BMS(미국)는 Systimmune(미국)과 EGFRxHER3 이중항체 ADC인 BL-B01D1에 대해 최대 84억달러 규모의 글

로벌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 AbbVie(미국) 역시 ImmunoGen(미국)을 약 101억달러에 인수하며 FR α ADC Elahere와 후속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ADC 확보 경쟁이 플랫폼 기술뿐 아니라 상업화가 검증된 중앙 선택적 ADC 자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대형 거래들은 ADC가 단기적 기술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항암제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ADC 주요 M&A 및 라이선스 계약

연도	계약	규모	확보 자산기술
2023	Pfizer-Seagen 인수	약 \$43B	Adcetris, Padcev, Tivdak 및 ADC 플랫폼
2023	MSD-Daiichi Sankyo DXd ADC 3중 공동개발	최대 \$22B	HER3-DXd, I-DXd, R-DXd
2023	BMS-Systimmune BL-B01D1 협업	최대 \$8.4B	EGFR \times HER3 bispecific ADC
2023~2024	AbbVie-ImmunoGen 인수	약 \$10.1B	FR α ADC Elahere
2024	J&J-Ambix 인수	약 \$2.0B	Site-specific ADC 플랫폼, ARX517 등

자료: 각 사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다만 시장 성장과 별개로 경쟁 강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HER2, TROP2, Nectin-4 등 검증된 타겟에서는 이미 승인 제품과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한다. 검증 타겟은 개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후 발주자가 의미 있는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 대비 명확한 효능, 안전성, 편의성, 병용 가능성, 또는 특정 환자군에서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동일 타겟과 유사 payload를 적용한 me-too ADC는 임상 개발 성공 이후에도 상업적 차별화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ADC 산업의 경쟁축은 검증 타겟 중심에서 신규타겟 및 차세대 ADC 플랫폼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다.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미 경쟁이 심화된 HER2, TROP2, Nectin-4 이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 선택성이 높은 신규 항원, 이중항체 ADC, conditionally active ADC, 신규 payload, site-specific conjugation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규타겟 ADC는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리스크가 높지만, 성공 시 First-in-class 지위와 높은 파트너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신규타겟 ADC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겟의 중앙 선택성인데, ADC는 payload의 독성이 강할수록 정상조직 발현에 따른 off-target toxicity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ADC 타겟은 암세포에서 높게 발현되고 정상조직에서는 제한적으로 발현되며, 항체 결합 후 빠르게 세포 내재화되고, 발현 강도와 임상 반응 간 상관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형암에서는 중앙 내 항원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bystander effect의 확보 여부도 중요한 개발 포인트다.

이처럼 ADC 산업은 승인 제품의 적응증 확대, 고형암 진입, 빅파마의 대규모 투자, linker-payload 기술 고도화를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해있지만, 검증 타겟 중심의 경쟁은 이미 심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 내 차별화의 핵심은 신규타겟 발굴, 중앙 선택성 검증, 안전성 확보, 그리고 전임상 데이터의 임상적 재현성 입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DC 산업 내 후속 성장 기회는 단순히 ADC라는 모달리티 자체보다, 어떤 타겟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겨냥하고, 어떤 linker-payload 조합으로 치료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포인트

1 신규타겟 ADC 파이프라인의 후속 L/O 가능성

동사는 신규타겟 ADC 개발사로 R&D 전략을 재편하고 있으며, 전임상 단계의 GENA-104 ADC와 GENA-120은 각각 CNTN4 & ITGB4 타겟의 중앙 선택성, 전임상 효능 및 경쟁 차별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L/O 가능성이 주목되는 핵심 파이프라인

동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중심의 R&D 구조에서 신규타겟 기반 항체 및 ADC 개발사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동사는 2023년 8월 이후 마이크로바이옴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상업화 영역에 집중하고, 신약개발은 GNOCLE™ 플랫폼 기반 신규타겟 First-in-class ADC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R&D 전략을 재편했다. 이미 Debio 0633과 EP0089를 통해 신규타겟 자산의 글로벌 기술이전 경험을 확보한 만큼, 향후에는 기술이전이 완료된 파이프라인보다 후속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추가 L/O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후속 L/O 후보로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은 GENA-104 ADC와 GENA-120이 있는데, 두 파이프라인 모두 기존 ADC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된 HER2, TROP2, Nectin-4 등 검증 타겟이 아니라, 아직 상업화된 ADC가 없는 신규타겟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글로벌 **ADC 딜 시장은 2024년 이후 검증 타겟 중심에서 Novel/First-in-class 타겟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검증된 타겟에서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이 경쟁 중이고, linker-payload 기술은 점차 commodity화되고 있어, 빅파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앙 선택적 타겟 확보가 중요한 전략적 니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GNOCLE™ 기반 신규타겟 발굴 역량을 보유한 동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먼저 **GENA-104 ADC는 CNTN4를 타겟으로 하는 ADC 후보물질**로, CNTN4는 다양한 중앙조직에서 발현되는 반면, 정상조직과 면역세포에서는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ADC 타겟으로서의 선택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CNTN4가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되고, 항체 결합 후 세포 내재화 및 lysosome 이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는 ADC가 세포 내로 진입한 뒤 payload를 방출해 세포독성을 유도하는 기전상 중요한 조건이다. GENA-104 ADC는 인간화 항-CNTN4 단클론항체에 Topoisomerase I inhibitor 계열 payload인 exatecan을 결합한 구조이며, 자체 설계한 친수성 절단형 LinkerE와 높은 DAR 8 구성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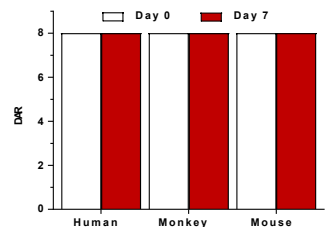
GENA-104 ADC

최종 후보물질: GENA-104A16B.LinkerE.Ex



- 항-CNTN4 단클론항체**
 - GENA-104A16B
 - 인간화 항체
 - hlgG1 (LALAPG)
- 세포독성 페이로드**
 - TOPO1i (Topoisomerase I 저해제), Exatecan (엑사테칸)
 - 높은 DAR (DAR 8)
- 친수성 절단형 링커**
 - LinkerE: retro-Michael 이탈 반응 감소

LC/MS로 측정한 혈청 내 DAR 안정성



↓
마우스, 원숭이, 인간 혈청 모두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임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임상 데이터에서도 타겟 선택성과 효능이 확인되었는데, in vitro 시험에서 GENA-104 ADC는 **CNTN4 양성 암세포** 주에서 음성 세포 대비 **32~578배 높은 효능**을 보였고, **Enhertu의 linker-payload**를 적용한 비교 ADC 대비 **표적 특이적 세포독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GENA-104 ADC: In Vitro 활성

Enhertu의 linker-payload를 장착한 경우 저능 고유의 linker를 장착할 경우

GENA-104 ADC의 CNTN4 표적 선택적 항암 활성

세포주	대조 ADC			104 GGFG.DXd ADC			GENA-104 ADC		
	GI ₅₀ , nM		TI ³	GI ₅₀ , nM		TI ³	GI ₅₀ , nM		TI ³
	WT ¹	OE ²		WT ¹	OE ²		WT ¹	OE ²	
HepG2 (간세포암종)	179	149	x1.2	20.1	0.733	x27	96.0	0.289	x332
Hep3B (간세포암 HCC)	133	143	x0.9	42.6	6.44	x6.6	233	2.31	x101
Huh7 (간세포암 HCC)	52.9	47.6	x1.1	5.91	0.674	x8.8	54.7	1.72	x32
HT-1080 (섬유육종)	99.6	106	x0.9	10.6	0.346	x31	80.3	0.390	x206
SK-BR-3 (HER2+ 유방암)	237	194	x1.2	14.6	0.275	x53	197	0.341	x578
정상 세포									
Hs27 (피부 섬유아세포)	720 nM			552 nM			> 1,000 nM		
HUVEC (혈관내피세포)	446 nM			8.72 nM			159 nM		
ARPE-19 (망막상피)	> 1,000 nM			135 nM			809 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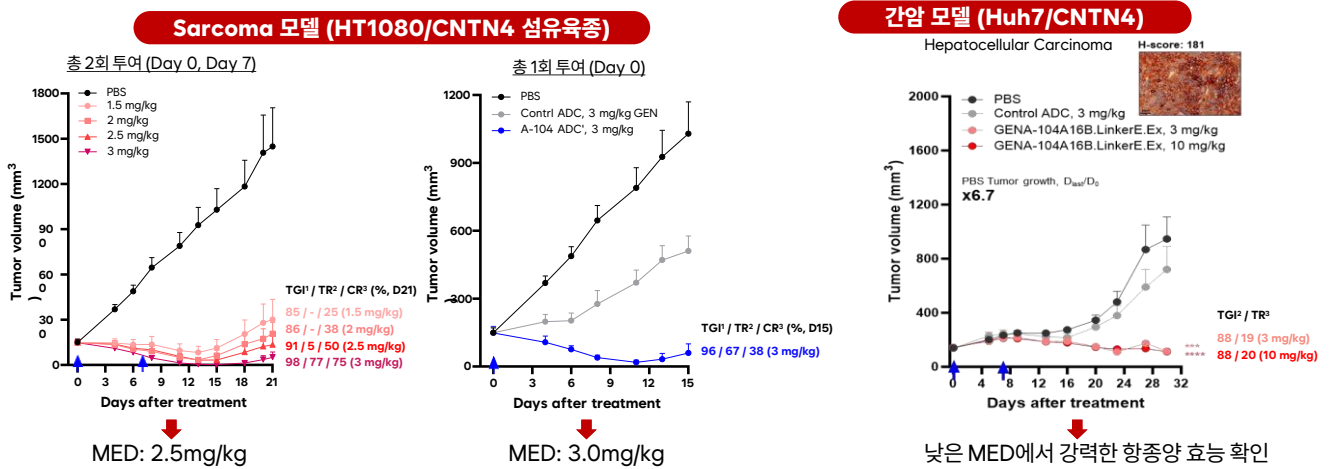
Enhertu의 linker-payload 대비 강력한 표적 특이적 세포독성을 보임 CNTN4 양성 암세포주에서 음성 대비 32~578배 증가된 효능을 보임

주) 모세포주를 타겟 음성 세포로 사용, 주2) CNTN4 과발현 세포주를 타겟 양성 세포로 사용, 주3) 치료 지수(TI)는 GI₅₀ 값을 기준으로 한 타겟 양성/음성 세포 간 세포독성 선택성 비율로 정의, TI = GI₅₀(타겟음성세포) / GI₅₀(타겟양성세포)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In vivo 세포주 유래 이종이식 CDX(Cell Line-Derived Xenograft) 모델에서는 sarcoma 및 간암 모델에서 낮은 용량으로 항종양 효능이 관찰됐으며, 환자유래 암조직 이식 PDX(Patient-Derived Xenograft) 모델에서도 CNTN4 발현이 높은 sarcoma와 lung cancer에서 높은 종양성장억제율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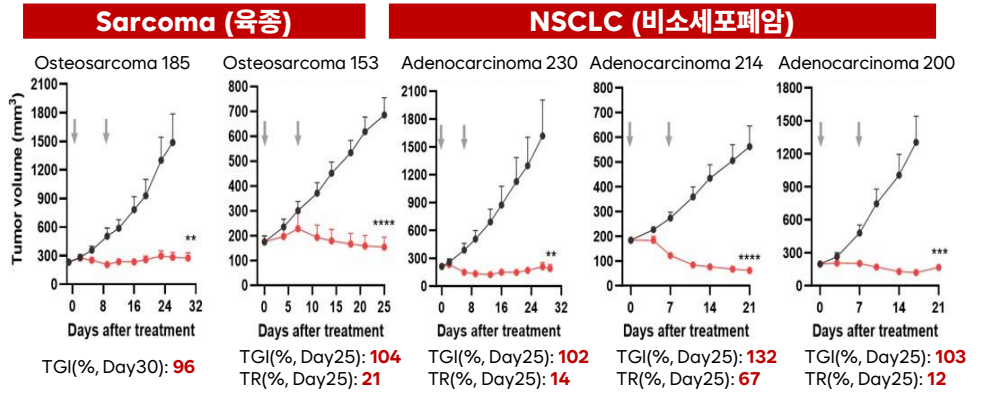
GENA-104 ADC: In Vivo CDX 모델에서의 효능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GENA-104 ADC: PDX 모델에서의 효능

In Vivo PDX Model (동물실험)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on-GLP 독성시험에서는 랫트 MTD 약 100mg/kg, 원숭이 HNSTD 30mg/kg 초과로 제시되어, **효능 용량 대비 안전역 확보 가능성**이 보고됐다. 아직 임상 데이터가 부재한 전임상 단계 자산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신규타겟 발현 특성, 세포 내재화, bystander effect, 효능 및 독성 데이터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후속 L/O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GENA-104 ADC: PDX 모델에서의 효능

랫트 및 원숭이 Non-GLP 독성 시험

동물종	SD 랫트 (수컷 3, 암컷 3)		사이노물구스 원숭이 (용량당 수컷 1, 암컷 1)	
	75 mg/kg		10 mg/kg	30 mg/kg
투여 용량	75 mg/kg		10 mg/kg	30 mg/kg
투여 경로, 일정	정맥주사(IV), 3주 간격 2회		정맥주사(IV), 3주 간격 2회	정맥주사(IV), 3주 간격 2회
임상 관찰 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사 없음 mBWL(최대 체중 감소)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사 없음 체중 감소 없음 탈모 (암컷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사 없음 mBWL(최대 체중 감소) < 7% (암컷에 한함) 탈모 (암컷에 한함)
임상병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WBC(림프구), RE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 소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중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 RET (수컷에 한함) ↓
표적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선 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 소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선, 비장 림프절, 회장, 글수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MTD(최대 내약 용량) 약 100 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HNSTD(중증 독성 무관할 최고 용량) > 30 mg/kg 	

MTD 100mg/kg, HNSTD > 30mg/kg
 독성 용량 (MTD 100mg/kg, HNSTD 30mg/kg) 이 효능 용량 (MED 2.5mg/kg)에 비해 충분히 큼 → Therapeutic index (safety margin) 이 충분히 확보됨

주) mBWL: Maximum Body Weight Loss, MTD Maximum Tolerated Dose, HNSTD Highest Non-severe Toxic Dose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GENA-120은 ITGB4를 타겟으로 하는 ADC 후보물질로, ITGB4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정상조직 대비 높은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두경부암에서는 PD-1 치료 실패 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예후가 불량한 HPV-negative 환자에서도 ITGB4 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충족 수요 관점에서 관심도가 높다. 대장암에서도 MSS/pMMR 전이성 대장암은 면역항암제 반응이 낮고, KRAS G12D/G12V 변이 환자군은 승인된 표적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ITGB4 ADC의 잠재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경쟁 관점에서는 CStone(중국)의 CS5006이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인데, CS5006 역시 ITGB4 타겟 ADC로 개발

중이며, 자체 linker와 exatecan payload를 적용한 전임상 파이프라인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GENA-120은 CS5006 대비 일부 세포주에서 8~10배 강한 항암 활성**을 보였다. 또한 GENA-120은 DAR 8 구조, 자체 LinkerE, exatecan payload 조합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ITGB4 양성 암세포 내재화와 다양한 암세포주에서의 세포독성이 확인됐다. **In vivo CDX 모델에서도 대장암 및 두경부암 모델에서 높은 종양성장억제율과 항종양 활성**이 관찰됐다.

지놈앤컴퍼니 GENA-120 데이터

장기	세포주	타겟 발현 밀도	GI ₅₀ (nM)		TI ¹	
			GENA-120	대조 ADC		
종양 세포주	대장암	COLO 205 (KRAS ^{WT})	1,644k	0.249	175	x702.8
		LS513 (KRAS ^{G12D})	1,064k	0.764	226	x295.8
		SW620 (KRAS ^{G12V})	283k	16.3	210	x12.9
		LS174T (KRAS ^{G12D})	149k	25.1	238	x9.5
	두경부암	SNU-899 (HNSCC)	1,188k	0.747	394	x527.4
		FaDu (HNSCC)	176k	5.81	186	x32.0
	식도암	KYSE-270 (ESCC)	310k	4.35	139	x32.0
		위암	NCC-StC-K140	1,163k	1.42	196
	체장암	BxPC3	1,425k	0.049	28.2	X575.5
		PSN-1	5k	180	224	x1.2
정상 세포	심장 미세혈관	HCMC (혈관내피세포)	2.0k	220	292	x1.3
	제대정맥	HUVEC (혈관내피세포)	1.4k	159	180	x1.1
	신장	HK-2 (상피세포)	1.3k	> 1,000	> 1,000	x1.0
	태아 위	Hs738.St/Int (섬유아세포)	0.5k	567	> 1,000	x1.8

GENA-120

- ITGB4 양성 종양세포에서 강력한 세포독성을 보임
- GENA-120 이 CS5006 대비 8~10배 강력한 항암 활성을 보임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stone CS5006 데이터 (AAC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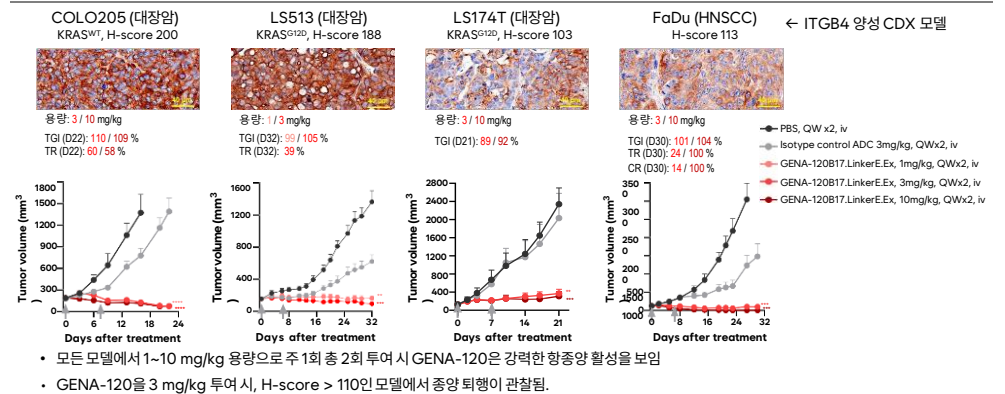
Indication	Cell Line	Absolute IC ₅₀			
		CS5006	Polatuzumab -CSL20-Exa	TI	Exatecan mesylate
adeno-NSCLC	H292	131.68	667.46	x5.07	0.17
	H1975	146.8	437.01	x2.98	0.11
	H1975/OSIR	174.92	407.14	x2.33	0.16
Sq-NSCLC	HARA	37.3	663.8	x17.8	0.71
	EBC-1	35.01	242.16	x6.92	0.08
HNSCC	CAL-27	41.01	291.93	x7.12	0.23
	Fadu	56.63	188.63	x3.33	0.19
CRC	DLD1	53.73	703.3	x13.09	0.3
	SW620	132.52	370.09	x2.79	0.18
BC	MDA-MB-468	222.29	317.12	x1.43	0.2
GC	N87	361.94	755.42	x2.09	0.2
UC	KU-19-19	9.68	771.48	x79.73	0.2
ESCC	KYSE-150	12.15	680.65	x56.03	0.1

CS5006

- ITGB4 타겟 인간화 항체 H86.2 + 자체 링커 CSL20 + Exatecan (DAR4)
- 개발 단계가 당사보다 빠름. 율하반기에 IND 신청 예정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GENA-120 ADC: In Vivo 효능 - CDX 이종이식 모델



주: ** p<0.01, *** p<0.001, **** p<0.0001 vs. 동종형(isotype) 대조 ADC,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처럼 GENA-104 ADC와 GENA-120은 모두 아직 전임상 단계라는 점에서 개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글로벌 ADC 시장의 관심이 Novel target ADC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L/O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이다. 특히 GENA-104 ADC는 CNTN4라는 신규타겟의 종양 선택성과 ADC 작동기전 검증 데이터, GENA-120은 ITGB4 타겟 내 글로벌 경쟁자 대비 효능 차별화 가능성과 두경부암 및 대장암 등 미충족 수요 암종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동사의 핵심 투자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동사의 UIQ 중심 컨슈머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화장품으로 상업화해 제품 라인업과 국내외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BEP 달성 및 해외 매출 확대가 확인될 경우 신약개발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하는 매출/손익 개선 속도로 재평가될 가능성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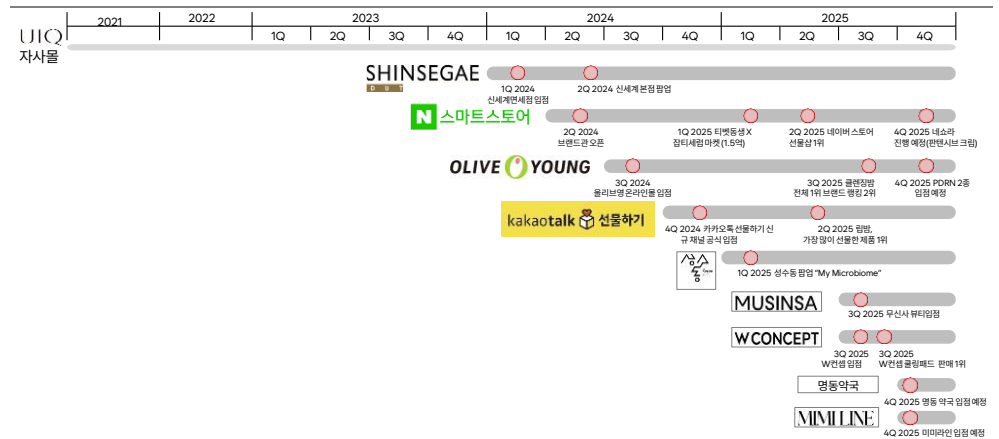
UIQ 중심 컨슈머 사업, R&D 바이오텍의 매출 가시성을 높이는 상업화 추

동사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UIQ)를 중심으로 한 컨슈머 사업의 외형 성장도 전개되고 있는데, 2021년 1월 론칭한 UIQ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역량을 소비자 제품으로 상업화하고 있다. 신약개발 사업이 기술 이전 및 마일스톤 수취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반면, 컨슈머 사업은 제품 판매 기반의 반복 매출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상 긍정적이다.

UIQ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화장품 브랜드로, 동사가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효능 원료인 큐티바이옴™, 릴리프바이옴™, 리주바이옴™을 핵심 성분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는 Biome Barrier, Biome Remedy, Biome Vita C, RejuBiome 등 총 4개 라인, 61개 SKU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렌징밤, 선크림, 섰스틱, 크림 미스트, 패드, 아이크림 등 스킨케어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출시한 리주바이옴 EX 아이크림은 UIQ의 첫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기존 장벽 및 진정 중심 제품군에서 안티에이징 카테고리로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성장 동력은 제품 라인업 확대와 유통 채널 확장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무신사, 카카오톡 선물하기, W컨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올리브영 및 화해 등 주요 플랫폼에서 카테고리 상위권 성과를 기록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 스토어 선물상 등 선물 수요 기반 채널에서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 브랜드 접점은 기존 화장품 전문 채널에서 라이프스타일 및 선물 채널로 확대되고 있다.

UIQ 채널 확장을 통한 성장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해외 확장도 병행되고 있는데, UIQ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채널을 넓히고 있으며, 로프트, 프라자, 돈키호테, 핸드 등 일본 주요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했다. 현재 일본 내 1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채널 입점이 진행됐고, Qoo10 및 Rakuten 단독 브랜드관도 운영 중이다. 또한 미국 아마존에서는 크림 미스트가 Amazon's Choice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현재 UIQ는 해외 28개국에 진출해 있고, 향후 해외 매출 비중 확대 여부가 컨슈머 사업 성장 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IQ 국내를 넘어 해외 채널까지 확장 중

한국			미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렌징밤] 올리브영 클렌징/전체 1위 (24년 8월) • [تون 선크림] 올리브영 선크어 전체 1위 (2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택물하기 많이 선물한 제품 1위 (2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크어] 네이버 스토어 선물샵 1위 (2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림미스트] Amazon's Choice 선정 • 입점 후 첫 '아마존 스프링 세일' (3/25~3/31) 평소대비 약 1900%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oo10, Rakuten 단독 브랜드 론칭 • [미스트], [클렌징밤], [이너뷰티] 1위 • 로프트(LOFT)와 프라자(PLAZA) 등 100개 오프라인 입점

자료: 지놈앤컴퍼니,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처럼 동사의 UIQ 중심의 컨슈머 사업은 제품 판매 기반의 가시적 매출을 창출하며, 신약개발 사업의 실적 변동성을 일부 보완하는 상업화 사업부로 자리잡고 있다. 향후 회사 계획대로 2026년 BEP 달성 및 해외 채널 확대가 확인될 경우, 컨슈머 사업은 단순한 매출 보안을 넘어 손익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부로 재평가될 수 있으며, 순수 R&D 바이오 텍 대비 재무적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동사의 투자포인트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리뷰

기술이전 공백에도 컨슈머 사업
고성장이 외형 저하를 방어,
영업외이익 영향으로 순적자 축소

동사의 **2025년 연매출은 약 246억원(-11.4% YoY)**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외형이 소폭 축소되었다. 실적 둔화의 핵심은 신약개발 사업 매출 부재에 있는데, 2024년에는 Debiopharm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7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반면 2025년 Ellipses Pharma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있었지만, 선금금 없이 마일스톤과 상업화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의 기저효과가 주요인이다. 하지만 컨슈머 사업 매출액이 약 120억원(+50.9% YoY)으로 대폭 성장하며 외형 저하를 방어했고, 이러한 성장은 화장품 브랜드 UIQ의 올리브영 중심 국내 오프라인 채널 확대, 일본 멀티채널 입점 등을 통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 결과 컨슈머 사업의 매출비중이 49.0%(+20.3%p YoY)로 확대되어 동사의 주요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으며, CDMO 사업 매출액은 약 124억원(-2.2% YoY)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매출의 50.4%를 차지하며 매출의 뒷받침을 해주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외형 둔화의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134억원(-14.6% YoY)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이 292억원(전년 24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자 확대의 배경에는 신약개발 매출 부재 외에도 UIQ 채널 확장에 따른 광고선전비 및 판매수수료 증가, 연구개발비 지출 등의 영향도 더해지며 연간 판관비는 426억원(+6.9% YoY)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배주주 손실은 64억원(전년 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영업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중 주가 상승에 따라 약 326억원 규모의 파생상품평가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며,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 상의 이익이다.

2026년 실적 전망

UIQ 브랜드 판매 호조가 외형
성장을 주도하나,
파생상품평가이익 기저효과
소멸로 순적자 폭 확대 전망

동사의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약 58억원(-9.0% YoY)으로 전년 평균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컨슈머 사업 매출이 약 36억원(+46.7% YoY), CDMO 매출이 약 21억원(-45.4% YoY)을 기록하며, 컨슈머 실적 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CDMO 매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 영업손실은 약 61억원(전년 67억원), 지배순이익은 약 63억원(전년 71억원)으로 별도의 이슈 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적자 수준을 유지했다.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약 294억원(+19.6% YoY)**을 기록하며 타라인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 수령 및 추가적인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없을 것이라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UIQ 브랜드의 판매 채널 및 지역 확대에 따른 컨슈머 사업 매출 성장이 타라인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컨슈머 매출이 182억원(+51.1% YoY)으로 CDMO 매출 110억원(-11.3% YoY)을 앞지르며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CDMO 사업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당시 사업 확장 차원에서 법인 인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후 마이크로바이옴化妆품을 위주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성장보다는 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매출원으로써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연내 컨슈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도 점진적인 적자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매출총이익은 약 169억원(+26.1% YoY)으로 컨슈머 매출비중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며, **영업손실은 약 265억원(전년 292억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주주 손실은 약 233억원(전년 64억원)**으로, 기존 영구전환사채(3회차 발행)가 이번 6월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에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의 영향이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6년 손손실 확대는 영업손실 확대가 아닌 전년 회계상 이익 소멸에 따라 적자 폭은 평년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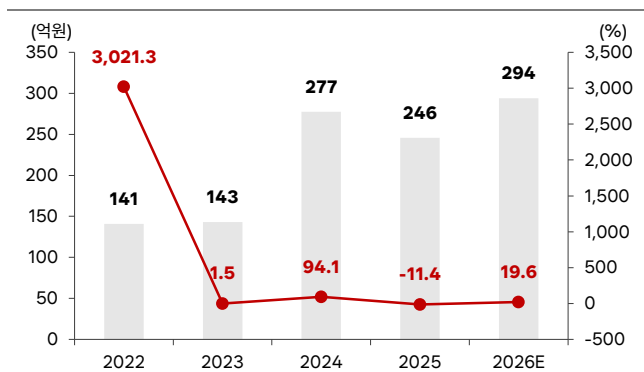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3	277	246	294
증가율 (%)	1.5	94.1	-11.4	19.6
신약개발	2	71	0	0
컨슈머	22	80	120	182
CDMO	119	127	124	110
기타	-	-	1	2
판매관리비	592	399	426	434
판매관리비율(%)	414.0	144.0	173.2	147.4
영업이익	-551	-242	-292	-265
영업이익률 (%)	-385.4	-87.2	-118.9	-90.1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계속사업이익	-519	-282	-87	-289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507	-268	-77	-278
순이익률 (%)	-354.3	-96.8	-31.3	-108.4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75	-201	-6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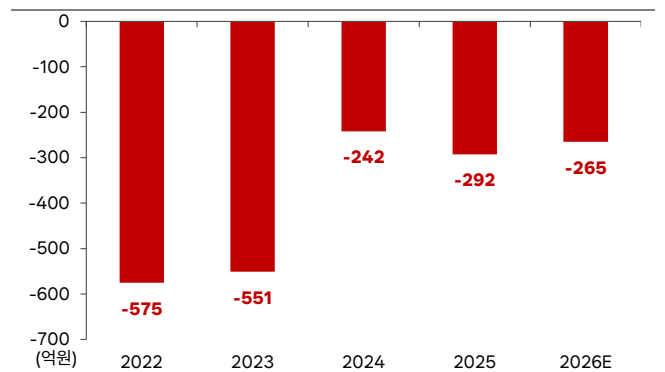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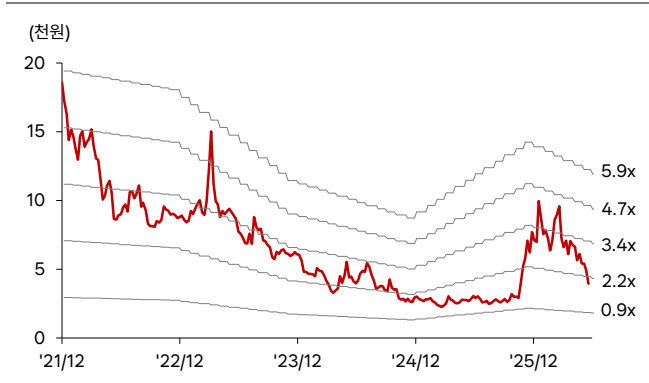
동사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2026년 컨슈머 사업 BEP 달성, 기존 L/O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 GENA-104 ADC 및 GENA-120의 신규 L/O가 확인될 경우 추가 리레이팅 여지 존재

동사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BR 2.1x, PSR 6.3x**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3개년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 PBR은 1.3~4.9x, 평균 2.3x, PSR은 2.6~31.3x, 평균 10.1x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동사의 2026년 예상 PBR과 PSR은 과거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규타깃 ADC 플랫폼, 글로벌 기술이전 레퍼런스, 컨슈머 사업의 매출 성장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구간**으로 보인다.

특히 동사는 이미 Debio 0633과 EP0089를 통해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는 GENA-104 ADC와 GENA-120 등 후속 신규타깃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텍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은 임상 진입, 기술이전, 글로벌 파트너십, 마일스톤 수취 가능성에 따라 크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는 이미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후속 파이프라인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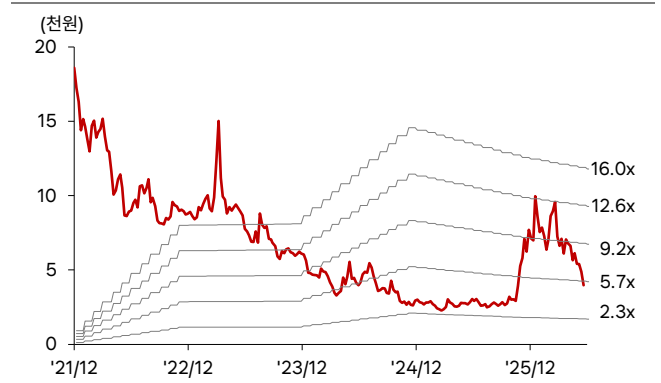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밸류에이션 상향의 핵심 변수는 2026년 컨슈머 사업의 BEP 달성 여부, 이미 기술이전된 Debio 0633 및 EP0089의 임상 진전, 그리고 GENA-104 ADC와 GENA-120의 신규 L/O 가능성**에 있다. 특히 글로벌 ADC 시장의 관심이 기존 검증 타깃에서 신규타깃 ADC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CNTN4 및 ITGB4 기반 파이프라인의 추가 기술이전이 확인될 경우 동사의 기업가치는 현재 수준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놈앤컴퍼니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놈앤컴퍼니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동사는 기술이전 성과와 컨슈머 사업 성장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나, 안정적 흑자 구조 정착 전까지는 유상증자, CB, CPS 전환에 따른 주주 가치 희석 및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모니터링 필요

동사는 First-in-class 타깃 기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통해 Debiopharm, Ellipses Pharma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입증한 바 있으며, 동시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상업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매출 기반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아직 안정적인 흑자 구조가 정착되기 전인 만큼, 연구개발 지속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동사의 사업적 성과와 별개로, 유상증자 및 전환 사채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 희석 가능성과 자본구조 변동을 함께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사는 2025년 제3회차 CB 발행(271억원)과 유상증자(258억원)를 통해 529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2026년에는 제4회차 CB 발행(270억원)과 두 차례의 유상증자(100억원)를 통해 누적 37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바이오텍의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추가 자금조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조달 이후 신주 상장 가능성 및 CB 관련 영업외손익 변동성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요인이다. 유상증자는 직접적인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며, CB 또한 만기 전 사채 취득이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보통주 전환을 통해 신주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이루어진 CB 전환과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기준 총 10,085,704주로, 현재 상장 보통주의 22.3%에 해당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 및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환 및 상황되지 않은 CB가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26Q1 말 기준 약 122억원), 주가 변동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해 영업외손익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2025년 7월 발행된 제13회 전환우선주 CPS의 전환청구 기간이 2026년 7월 13일부터 도래한다. 해당 CPS의 전환가액은 2,780원이며, 잔여 CPS는 총 9,276,640주로 현재 상장 보통주의 약 20.5%에 해당한다. 따라서 CPS 전환에 따른 보통주 신주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오버행 또는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동사는 CB의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통해 잠재 희석 규모를 일부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자금조달 관련 리스크는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는 바이오텍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다. 향후 추가 기술이전 성과, 컨슈머 사업의 외형 성장 및 BEP 달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재무적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관리하며 추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1	143	277	246	294
증가율(%)	3,021.3	1.5	94.1	-11.4	19.6
매출원가	85	102	121	112	125
매출원가율(%)	60.3	71.3	43.7	45.5	42.5
매출총이익	56	41	157	134	169
매출이익률(%)	39.7	28.4	56.5	54.5	57.5
판매관리비	631	592	399	426	434
판매비율(%)	447.5	414.0	144.0	173.2	147.6
EBITDA	-481	-468	-168	-226	-206
EBITDA 이익률(%)	-341.2	-327.5	-60.4	-91.8	-70.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575	-551	-242	-292	-265
영업이익률(%)	-408.3	-385.4	-87.2	-118.9	-90.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5	32	-40	206	-24
금융수익	10	104	106	351	83
금융비용	17	49	63	117	77
기타영업외손익	1	-23	-83	-28	-3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80	-519	-282	-87	-289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11	-12	-14	-10	-11
계속사업이익	-569	-507	-268	-77	-27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69	-507	-268	-77	-278
당기순이익률(%)	-404.3	-354.3	-96.8	-31.3	-94.6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518	-475	-201	-64	-23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6	-322	-163	-184	-178
당기순이익	-569	-507	-268	-77	-278
유형자산 상각비	46	53	45	40	37
무형자산 상각비	49	30	30	26	22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4	-28	-55	-21	35
기타	72	130	85	-152	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154	116	-75	-3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43	42	-22	-43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8	-189	-40	-3	-2
기타	69	78	114	-50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86	306	52	-222	403
차입금의 증가(감소)	0	90	0	0	197
사채의증가(감소)	0	235	58	-195	83
자본의 증가	0	0	0	0	106
배당금	0	0	0	0	0
기타	786	-19	-6	-27	17
기타현금흐름	11	12	87	-19	-17
현금의증가(감소)	362	-159	92	-500	178
기초현금	360	722	564	655	156
기말현금	722	564	655	156	334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169	970	919	523	645
현금성자산	722	564	655	156	334
단기투자자산	377	323	157	224	186
매출채권	20	14	21	19	15
재고자산	22	36	58	60	77
기타유동자산	28	35	29	64	33
비유동자산	561	650	554	927	947
유형자산	154	301	241	173	171
무형자산	304	252	224	167	146
투자자산	3	13	3	513	556
기타비유동자산	100	84	86	74	74
자산총계	1,730	1,621	1,473	1,450	1,592
유동부채	111	289	298	228	525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2	3	5	5	14
기타유동부채	109	286	293	223	511
비유동부채	113	197	185	76	7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90	90	0	0
기타비유동부채	113	107	95	76	75
부채총계	225	485	483	304	601
자배주주지분	973	624	483	1,058	949
자본금	80	81	164	220	228
자본잉여금	3,047	3,048	2,965	3,070	3,168
자본조정 등	197	315	337	843	86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1	27	65	37	37
이익잉여금	-2,372	-2,847	-3,048	-3,112	-3,345
자본총계	1,505	1,135	991	1,146	99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2.9	3.2	1.9	2.9	2.1
P/S(배)	18.1	14.0	3.2	10.5	6.3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769	-1,485	-616	-172	-452
BPS(원)	3,047	1,931	1,472	2,402	1,730
SPS(원)	481	447	850	658	571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54.6	-59.4	-36.3	-8.3	-23.2
ROA	-36.7	-30.2	-17.4	-5.3	-18.3
ROIC	-136.7	-109.3	-44.4	-55.8	-61.6
안정성(%)					
유동비율	1,049.4	336.0	308.4	228.9	122.9
부채비율	14.9	42.8	48.7	26.6	60.6
순차입금비율	-68.9	-47.6	-44.5	-14.7	-2.9
이자보상배율	-328.7	-31.7	-6.8	-6.2	-7.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1	0.1	0.2	0.2	0.2
매출채권회전율	10.4	8.5	16.0	12.6	17.7
재고자산회전율	7.9	4.9	5.9	4.2	4.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놈앤컴퍼니	O	X	X

2026년 03월 26일 기준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으로 1일간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6.30	지놈앤컴퍼니(314130)-신규타겟 ADC로 체질 전환, 다음은 후속 LJO
2022.05.10	지놈앤컴퍼니(314130)-면역항암제 &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텍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